

2025년 5월 1일 목요일 1554호

The Leading Weekly Newspaper For Koreans Since 1991

koweekly.co.uk

1 MAY 2025

'킹스톤 2025' 축제 열린다

3일 (토) 마켓플레이스서 개막 … 6개월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진행

an and a fair

한인들이 많이 모여사는 뉴몰든을 포함하는 런던 남서부 킹스턴시에서 특별한 해를 맞아 대규모 문화 축제가 열린다.

3일 (토) 고대 마켓 플레이스에서 개막하는 '킹스톤 2025' 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 전시, 강연, 투어, 야외 공연 등 다양한 무료 프로 그램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잉글랜드 최초의 통일 왕 애설스탠(King Athelstan)이 킹 스턴에서 왕으로 즉위한 지 1100주년 을 기념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기획 된 행사다.

5월 3일 축제 개막일에는 고대 마 켓 플레이스에서 거리극, 음악, 춤이 어우러진 공연이 펼쳐진다.

주요 일정으로는 6월 28일 : 로

본지 다음호 발행 5월 **15일**

즈 극장에서 열리는 창작 음악 공연 Bridging Kingston – A Musical

Odyssey에 지역 초등학생 150명이

7월 26~27일 : Athel's Town이 라는 색슨족 캠프와 역사 재현 행사 가 캔버리 가든스Canbury Gardens 에서 개최, 킹스턴 브리지에서는 색슨 전사 퍼레이드도 예정.

9월 6일 : River Cultures Festival.

강을 따라 펼쳐지는 다양한 시대의 선박 퍼레이드.

9월 7일 : 화려한 무대와 아프리카 –카리브 음식. 음악이 어우러지는 킹 스턴 카니발Kingston Carnival.

이외에도 Mini Day, Fuse International, 킹스턴 국제영화제, 킹스턴 글래머 전시, 색슨 드럼 워크 숍, 벽화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프로 그램이 여름 내내 이어진다.

주영하

옥스퍼드 사전 속의 K푸드 ⑦ 반찬

영국, 재외선거에 6177명 등록

전세계 26만4251명 등록 … 20대 비해 3만명 ↑

영국에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 재자를 포함 6177명이 제 21대 대통 령선거 신고·신청을 했다.

전체 예상 선거인 수 2만8079명 중 21.78%가 등록을 마쳤다.

영국 거주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높이기 위한 추가 투표소는 지난 총 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설치되 지 않는다. 재외국민수가 3만 명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청이 2023년 (2022년 12월 기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 주권자, 일반 체류자, 유학생을 포함 하는 영국 재외국민수는 2만8079명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 난달 26일 공관별 재외선거 신고·신 청 최종 접수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마감 일까지 신고·신청을 한 국외 부재자 는 23만2987명, 재외선거인은 3만 1264명이 등록했고 재외선거인 명 부에 등록된 재외국민 2만6341명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 령선거에 참여한다.

중앙선관위는 4월 24일까지 재 외유권자 등록을 받았다. 재외선거 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5월 4일에 확정된다.

이번 대선 재외선거는 5월 20일 부터 25일까지 재외공관 등에 설치 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참고로 2017년 실시한 19대 대 선은 30만34명, 2022년 실시한 20 대 대선은 23만1247명이 최종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에 등록했다.

〈관계기사 2면〉편집부

김석천 목사

교회는 가정(Home)입니다

≫24

재영외식업협회

제4회 한식당 네트워크 행사

재영한인 체육대회 개최 전국체육대회 참가 신청 안내

> 15

18면 참조

>20

아이러브스테이지 한국 뮤지컬 〈더 그레이트 개츠비〉

> 23













www.kib.co.uk 020 7847 8630/1 info@kib.co.uk 3rd FI, 14 Austin Friars, London EC2N 2HE

지사설립 / 주재원비자 혼비자/영주권/시민권 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국이민센E ☎ 079 4450 5952 (왓츠앱) ukemin@hotmail.com / www.ukimin.com 카톡 ID: johnhsuh (문자 및 음성통화 상담가능)



한국 무사고 경력 100% 인정 **20208 715 0120**

jinnydaehan@gmail.com 63 High St, New Malden KT3 4BT

((C&C Express

국내·해외 이사·Delivery 안틱 & 커머셜 (수출·수입)

07740 283 409 07833 671 027









항공권 & 여행 전문 **5** 020 8241 7987 / 8949 1279 07804 779 401

www.boratravel.com

세관/유럽 배송 문의 환영

www.lpouk.com 런던우체국

020 8569 2588 / 0789 790 2044



튠업 / 타이밍벨트 / 오일교횐

New Malden KT3 3NE **☎07540 142 017** 기술자 염관식



0208 241 0836 / 07880 700 492 167 Surbiton Hill Park Berrylands KT5 8EJ

GARTH COATES SOLICITORS 법무법인 가스코트



스폰서라이센스 / 셀프스폰서쉽 / 사업·취업비자 결혼비자 / 영주권 / 시민권 / 항소 / 행정소송 부동산 취득 및 임대계약 / 이혼 / 양육권 소송

변상미 020 3971 5084

WhatsApp: 07957 248 195 • www.garthcoates.com



주일예배 안내



·예배시간 : 매 주일 오후 1시

· 예배장소: 14 Tudor Close, Chessington, KT9 1BL

· 담임목사 : 이강호 · 홈페이지:www.londoncalvary.com

· 1 07766 145 178



민박/하숙, 뉴몰든역 3분 고급 단독 주택 출장 주재 연수 여행, Wifi, 조식 석식 한식 일인 욕실룸 / 넓은 가족룸, 카드결제 가능



REGISTERED AS A NEWSPAPER AT THE POST OFFICE

2 / 영국·세계



"한국 중소기업 해외 시장 개척의 교두보가 되겠습니다"

JS 홀딩스, KOTRA 런던 무역관과 업무협약

한식 브랜드 '요리', '케이크 앤 빙수', '인생네컷' 유럽 총판 등 의 영국과 유럽 내 한국 문화 관 련 사업을 주도하는 JS 홀딩스 측 이 지난 4월 23일 KOTRA 런던 무역관과 Piccadilly Circus에 위 치한 한국 복합 문화 센터 '놀이터 Playground' 내 'KOTRA 런던 홍 보관' 입점을 통한 한국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업무 협 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KOTRA 런던 무역관 김도형 관

한식 브랜드 '요리', '케이크 앤 장은, JS 홀딩스 김종순 대표의 한수', '인생네컷' 유럽 총판 등 국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시장 진영국과 유럽 내 한국 문화 관 출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놀시업을 주도하는 JS 홀딩스 측이터' 내 KOTRA 런던 홍보관 입지난 4월 23일 KOTRA 런던 점을 위한 공간 제공에 대해 감사역관과 Piccadilly Circus에 위의 인사를 전했다.

JS 홀딩스 김종순 대표는 "한국 중소 기업의 우수한 품질의 제품들 이 영국 및 유럽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교두보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진 및 기사 제공 : JS 홀딩스그룹



'21대 대선' 재외선거인 26만4251명 등록

20대 비해 3만명 ↑ · · · 투표일, 5월20~25일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 통령선거 재외선거인 수는 총 26만 425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마감한 국외 부재자 는 23만2987명, 재외선거인은 3만 1264명이 등록했고, 여기에다 재외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재외국민 2만 6341명이 재외선거에 참여한다.

권역별로는 아시아권이 11만 6974명으로 가장 많고, 미주권이 6만2989명, 유럽권이 4만3568명, 중동권이 6999명, 아프리카권이 2847명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만1799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2만6003명, 중국 2만5027명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도 베트남 1만6550명, 캐 나다 1만4141명, 독일 1만3170명, 호주 1만2172명, 영국 6149명, 프랑 스 4709명 등이 재외선거에 참여한 다

재외공관별로는 일본대사관이 1 만56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하 이총영사관 8910명, 베트남대사관 8538명, LA총영사관 7965명, 호치 민총영사관 7414명, 밴쿠버총영사 관 6824명,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6513명, 뉴욕총영사관 6454명, 영 국대사관 6177명, 싱가포르대사관 5488명, 토론토총영사관 5526명, 프 랑스대사관 4709명 등으로 집계됐 다.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유권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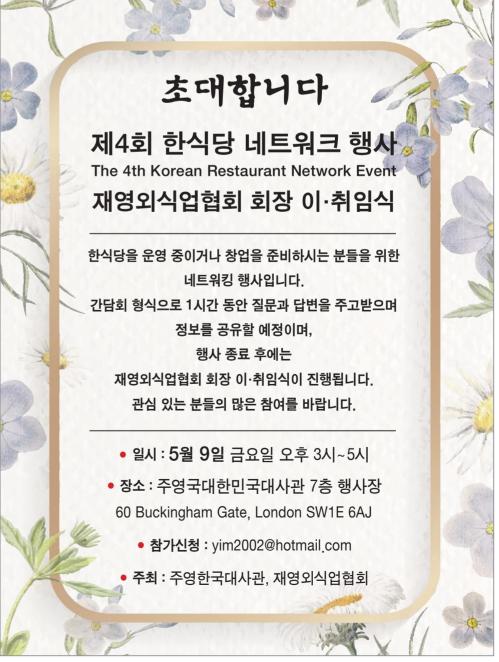
오는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재 외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2017년 실시한 19대 대선은 30만 34명, 2022년 실시한 20대 대선은 23만1247명이 최종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를 등록했었다.

재외선거인명부 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해당하는 5월 4일 확정한다.

한인사회 관계자는 "재외선거인수를 보면 이번 대선에 대한 재외동 포사회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다"며 "19대 대선보다 재외선거인수가 적은 것은 코로나19 당시 중국 등 일부 지역에서 국내로 복귀한 재외동포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불기 2569(2025)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Peaceful World, Compassionate Mind

봉축법회 : 2025년 5월 4일 (일) 오전 11시

주소: 5 Waters Road, Kingston-upon-Thames, KT1 3LW

연등신청: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info younhwasa@gmail.com / +44 (0) 776 7637 450

홈페이지: www.younhwasa.org.uk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행복한 지금을 누리는 인연에 감사합니다. 런던 연화사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를 야단법석으로 여오니, 두루 함께 오셔서 정겹고 복된 시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YOUN HWA SA (KOREAN BUDDHIST CENTRE IN THE UK) REGISTERED CHARITY NO. 1047554



수행을 위한 열린 공간 연화사

소속으로 1989년 6월 뉴몰든에 근접한 킹스톤 에 창건됐습니다.

영국 내 유일한 한국사찰로 주지이신 지수 스 님의 지도하에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 化衆生) 위로는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스스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바와 같은 깨달 음을 얻는 것이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교화하여 참된 지혜와 자비의 삶을 이끄는 것을 통한 '자 리이타(自利利他)' 자신도 이롭게 하면서 타인도

런던 연화사는 대한 불교 조계종 해외 교구 이롭게 해야 한다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교민 및 현지인의 수행을 위한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정기 법회 (매월 1, 3 주 일요 정기법회, 매주 목요일 보현법회)와 특별 법회 (부처님 오신 날, 성도재일 철야정진, 백중, 설날/추석 차례 법회)를 갖고 있습니다.

■문의: info.younhwasa@gmail.com

■웹사이트: www.younhwasa.org.uk

((C&C Express Ltd.

THE PREMIER FREIGHT FORWARDERS

최고의 차별화된 글로벌 물류 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편안한 이사가 되도록 씨엔씨 익스프레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020 8949 8216 01483 322 505

07740 283 409 07833 671 027

WARE HOUSE: VALENTINE FARM (BARN BO1), ROSE LANE, RIPLEY, SURREY, GU23 6NE

OFFICE: NEW MALDEN

express@urcnc.com



영국 Local Agent를 선도하는 서울부동산이 부동산 매매·임대·관리까지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 뉴몰든 및 윔블던 부동산 최초 6년 연속 British Property Awards 수상
- 지역 내 임대 부문 시장 점유율 1등 (New Malden, 2022년 Rightmove 기준)
- 영국 내 모든 부동산 법령을 준수하며 신속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가능 (Client Money Protection, AML, Propertymark, Property Ombudsman 등)

전문 Mortgage Broker 및 Solicitor과 연계하여 부동산 상담



- 주택 및 상가 매매
- 주택 및 상가 임대 및 관리
- 부동산 개발 컨설팅

info@sr4u.co.uk 020 8949 4989 158 High Street, New Malden, KT3 4ES



THE KOREAN WEEKLY / 1 MAY 2025



True World FOODS Europe We're Hiring!

Join our international team in the premium seafood and Asian food distribution industry. We are currently hiring for the following positions across Europe:

United Kingdom (London)

Position: Sales Representative

- Build and maintain strong customer relationships
- Sales experience preferred (experience in the food industry is a plus)
- English required (Korean or Japanese language skills are a plus)
- Work Location: London, UK

Germany (Aachen)

Positions: Operations Manager

- · Sales Associate / Purchasing Associate
- Experience in food, logistics, or import/export preferred
- English or German required (Korean language skills are a plus)
- · Work Location: Aachen, Germany
- For UK-based candidates only: Option to work 3 weeks in Germany / 1 week in the UK (London) per month
- Accommodation support is available in Germany only for UK-based candidates

Spain (Madrid)

Position: Sales & Operations Manager

- Manage both sales and operations functions
- Experience in the seafood or food distribution industry preferred
- English or Spanish required (Korean language skills are a plus)
- · Work Location: Madrid, Spain
- For UK-based candidates only: Option to work 3 weeks in Spain / 1 week in the **UK (London)** per month
- Accommodation support is available in Spain only for UK-based candidates

To Apply:

Please send your CV to HR@trueworldfoods.co.uk Be part of a global team and grow your career with True World Foods!

www.trueworldfoods.co.uk

Calvary Presbyterian Church, London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다고 하느니라."

잠언의 교훈 124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 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 고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음부(지옥)와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잠 30:12-17)

아굴은 본문 앞 부분에서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자기는 짐승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묻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 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은 아굴은 두 가지 일을 기도합니다.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 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 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새로운 삶 을 살게 합니다. 전에는 자기만 알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전에는 거머리의 두 딸처럼 다고 다고 했는데 이제는 베풀려고 합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손 뿐만 아니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자만하지 않고 강포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어떤 형편 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 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유20,21).

이강호 목사

주일예배

· 예배 시간 : 주일 오후 1시

예배 장소: 14 Tudor Close, Chessington, KT9 1BL

· 담임 목사: 이강호

갈보리장로교회 홈페이지 www.londoncalvary.com ☎ 07766 145 178



♥소문난 후라이드·양념·간장 시킨

주문, 포장도 됩니다. 020 8337 7999 ggm지지엠은 몰든마너 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121 Manor Drive North New Malden, KT3 5PD



THE KOREAN WEEKLY / 1 MAY 2025 전면광고 / 15

2025년도 재영한인 체육대회 개최

재영한인동포들의 친목과 화합 및 동포사회의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영국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청이 후원하는 '2025년도 재영한인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재영국선수 대표팀 선발전을 겸하는 대회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영한인 볼링대회

- 일 시: 6월 7일 (토) 10:00

- 장 소: Hollywood Bowl Tolworth

- 참 가 비 : 20파운드 (1인)

- 신청마감 : 5월 23일 (금) 오후 6시

■ 재영한인 축구 및 족구대회

일 시:5월 31일 (토)

- 장 소: Prince George's Playing Field, Raynes Park

- 참 가 비 : 축구 50파운드 (팀당) / 족구 20파운드 (팀당)

- 신청마감 : 5월 16일 (금) 오후 6시

● 주최 : 재영국대한체육회

● 후원 및 협찬: 재외동포청,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각 재영단체, Korea Foods, H-Mart, DUX 유로택배, 각 주재상사,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영국본부. 재영한인업체 등

● 은행 송금 : Korea Sports Council in UK (송금시 종목 및 팀명, 이름 기재)

Barclays Bank 20-42-73, AC No: 83945863

● 문의: 재영국대한체육회 사무국

07984 754 884 (축구) / 07875 199 770 (족구, 볼링)

kscinuk@gmail.com

재영국대한체육회장 오현균

전국체육대회 참가 신청 안내

• 대회기간: 10월 17일(금)~ 23일(목)

장 소 : 부산광역시

● 신청기한 : 6월 23일 ~ 7월 4일 (금) 18:00까지

• 종목(선수): 축구, 골프, 볼링, 테니스, 탁구, 스쿼시, 태권도, 검도 등

◆ 선발기준: - 2007년 9월 1일 이전 출생자 (만 18세 이상),

B

- 대회개시일 기준 1년 이상 영국체류자.

- 2024년 10월 18일부터 2025년 10월 16일 사이 영국거주일이 180일 이상인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증빙서류: Passport, Visa, E-Mail Ticket,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필수 제출

• 경기임원 및 본부임원 선발기준 : 재영국 대한체육회 임원.

※ 체전기간 숙식 제공, 약간의 참가비와 일부 항공료 보조금 지급.

※ 일부 항공료 보조금은 대한체육회에서 각 나라별로 산정하여 계산

단장님을 모십니다

재영국대표선수단을 이끌고 봉사해주실 단장님을 모십니다

대회명 :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부산광역시)

후원금: £2,000 이상

문 의 : 재영국 대한체육회 사무국 07875 199 770

은행송금: Korea Sports Council in UK

Barclays Bank, 20-42-73 AC No. 83945863 (송금시 이름 기재)

재영국대한체육회장 오현균



떡·콩나물 전문 푸른농원은 바른 먹거리를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각종 행사용 모둠떡, 돌·백일·생일 모둠떡, 떡케이크 전문



* 푸른농원은 천연재료로만 맛을 냅니다.

27 07379 960 460

(주문 전용번호를 이용해 주세요, 새벽 5시~낮 12시)

이메일 주문 ukgreenfarm@gmail.com 43 Martin Way, Morden, Surrey SM4 4AH 27 020 8417 1123

시나이 모터스

SYNAI MOTORS



■도색전문 ■보험·수리 ■MOT 대행 0208 241 0836 07880 700 492

167 Surbiton Hill Park Berrylands KT5 8EJ

/ 19 전면광고 THE KOREAN WEEKLY / 1 MAY 2025

해외동포들을 위한

대림성모병원 해외종합건강검진



18년간의 해외검진 노하우 | 최고의 의료진 | 최첨단 의료장비 | 부담없는 비용

해외종합검진 혜택

- 1 로얄종합검진 및 입원종합검진시 1인실 배정 2 세면도구제공

3 검사결과지 및 영상 CD제공

남 98만원 여 111만원 (40세 미만) 113만원 (40세 이상)

당일종합검진

의사 상담(검사 전후), inbody, 안저검사, 청력검사, 심전도, 구강검사, 위내시경(수면 선택), 헬리코박터균 검사(CLO test), 흉부X-선검사, 골밀도, 저선량흉부CT, 두부CT, 뇌동맥류 위험 평가, 복부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남), 골반초음파(여), 유방촬영(여 40세 이상), 유방초음파(여), 자궁경부세포진(여) 혈액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5종(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여), 전립선암(남)), 갑상선기능, 빈혈, 간염검사(A형/B형/C형), 간기능, 담관검사, 고지혈증, 당뇨, 신장기능, 통풍, 칼슘, 혈액형검사, 전해질검사, 감염 및 성병검사,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질환, 심근질환, 혈액학검사 및 백혈구 백분율, 소변검사 10종

남 138만원 여 151만원 (40세 미만) 153만원 (40세 이상)

입원종합검진

당일검진 포함

- + 폐기능, 복부비만CT, 대장내시경, 인유두종바이러스(여)
- + 혈액추가(빈혈정밀, 비타민D)
- + 비타민B & 비타민C(영양제) 주사 제공
- + 1인실 제공

남 285만원 여 298만원 (40세 미만) 300만원 (40세 이상)

로얄종합검진

입원검진 포함

- + 뇌MRI, 뇌MRA(두부CT 대체), 척추 MRI(경추, 흉추, 요추, 천추)
- + 복부CT, 심장CT(관상동맥/조영제),
- + 경동맥초음파, 심장초음파
- + 혈액추가(심혈관질환)



대림성모병원

DAERIM SAINT MARY'S HOSPITAL

홈페이지:www.drh.co.kr

07442

서울시 영등포구 시흥대로657

종합검진 상담 및 예약 안내

국제진료센터

+82-(0)2-829-9300 대표전화

HP

+82-(0)10-4429-5798

Kakao ID

Daerim8319003

E-mail

Fax

global_healthcare@drh.co.kr

+82-(0)2-829-9128

20 칼럼 2025년 5월 1일 목요일 / 코리안위클리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전 중 하나다. 최근 한류 붐으 로 인해서 한국어가 이 사전에 매년 추가로 등재되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으로 K푸드 관련 단어가 19개 등재되었다. 이것은 한국문화와 한국음식이 영 어권에 그만큼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마침 런던에 체류 중인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문학자인 주영하 교수가 19회에 걸쳐서〈옥스퍼드 영 어사전 속의 K푸드〉라는 칼럼을 싣는다. - 편집자 주 -

Banchan in Oxford English Dictionary

- ■정의: In Korean cookery: a small side dish of vegetables, etc., served along with rice as part of a typical Korean meal.(한국 요리에서 전형적인 한국 식사의 일부로 밥과 함께 제공되는 채소 등의 양이 적은 요리)
- ■용례 ①: Mr Kim Sung Soo's father..has the strange habit of keeping his favorite 'banchans' such as salted fish, hot red pepper mixtures of all kinds all in his closet so that his room. has the smells of a Korean pantry.(김성수 씨의 아버지는... 젓갈, 온갖 종류의 고추장 등 자신이 좋아 하는 '반찬' 을 옷장에 넣어두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서... 방에서 한국식 저 장고 냄새가 난다.) Yun Chi-ho, Diary 13 February in Yun Chi-ho's Diary vol. XI. 17, 1938.
- ■용례 ②: Every Korean meal comes with banchan (모든 한국 식사는 반찬과 함께 제공된다.), Phoenix Magazine, May 84/1, 2013.
- ■용례 ③: Dinner was more often than not steamed mixed rice and grains, a simple bowl of kimchi stew or soup brought still bubbling to the table, plus banchan and maybe seasonal fruits to finish the meal.(저녁 식사는 대개 잡곡밥과 잡곡밥을 쪄서 먹고, 김이 모락모락 나 는 김치찌개나 국을 끓여 식탁에 올리고, 반찬과 제철 과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Rachel Wharton & Sohui Kim, Korean Home Cooking: Classic and Modern Recipes, Oct. 2018.

옥스퍼드 영어사전 속의 K푸드 ⑦ '반찬'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반찬 정의

지금까지 다룬 옥스퍼드 영어사전 의 K푸드는 모두 김치, 고추장, 된장 처럼 특정한 음식이었다. 이번에 살 펴볼 반찬은 '밥, 국, 반찬' 처럼 한국 인이 관습적으로 먹는 식단의 구조 중 하나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이 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 듯하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한국 식사의 일 부(part of a typical Korean meal)" 라고만 정의했기 때문이다.

이런 아쉬운 정의는 한국어 사전 을 참조해도 마찬가지다. 반찬은 한국 식 한자 '飯饌'에서 온 단어다. 곧 "밥 에 곁들여 먹는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단어를 직역하면 그렇다. 하 지만 문화인류학적인 분석을 하면 좀 달라진다.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일상의 식단 구조는 〈밥+국+반찬〉이 다. 식탁에 음식을 차릴 때도 한 사람 앞에는 반드시 〈밥+국+숟가락+젓가 락〉이 놓인다. 여러 명이 함께 식사할 때 참석자들은 하나의 반찬을 함께 먹 는다.

나는 2018년에 펴낸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 : 식사 방식으로 본 한국 음식문화사》(휴머니스트)의 "제 9장에 왜 한 상 가득 차려놓고 먹을 까?, 제10장에 왜 밥, 국, 반찬을 한꺼 번에 먹을까?"를 다루면서 전형적인 한국 식사의 구조가 어떻게 생겨났는 지를 살폈다. 이 책의 일부 내용을 다 음에 소개한다.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여러 명이 함께 식사할 때의 상차림 방식

일본 문화인류학자 이시게 나오미 치(石毛直道)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 의 음식문화 특징으로 끼니때 먹는 음 식을 주식과 부식이라는 개념으로 구 분하는 점을 들었다. 보통 주식에 해 당되는 음식은 1차적으로 배를 부르 게 할 목적으로 먹는데, 주로 곡물이 나 서류(薯類, 감자나 고구마)가 주재 료이다. 이들 주재료는 탄수화물이 많 은 식품으로 간을 하지 않는다. 간이 되어 있지 않은 주식은 간이 되어 있 는 고기·생선·채소 등의 부식을 함께 먹어야 식욕이 증진된다.

한편, 미국의 언어학자 댄 주래 프스키(Dan Jurafsky)는 중국의 다 른 지역과 달리 광둥(廣東) 지역 사람 들은 '전분(starch) 음식'과 '비전분 (nonstarch) 음식'을 서로 섞어 먹는 습관이 있다고 했다. 그의 설명에 따 르면 광둥식 식사는 쌀·국수·죽 등으 로 구성된 '전분 음식' 과 채소·고기·두 부 등으로 구성된 '비전분 음식'으로 구성된다. 광둥 사람들의 일상식사는 "흰쌀밥이 각각 나오고 비전분성 음 식이 다른 접시에 따로 담겨 나와 저 마다 먹을 만큼씩 쌀밥 위에 덜어 먹 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4년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음 식과 건강 칼럼리스트 케이트 브래 츠카이어(Kate Bratskeir)는 《이 팅 코리안(Eating Korean)》(Lee, Cecilia Hae-Jin, Eating Korean: from Barbecue to Kimchi, Recipes from My Home. Houghton Mifflin Harcourt, 2005.)의 저자인 세실리 아 해진 리(Cecilia Hae-Jin Lee)에 게 전화로 한국음식 먹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Bratskeir, Kate., 〈A Guide 대성학교 교장 등을 지냈다. 일제강점 To Banchan, Those Delicious 기 들어와서 윤치호는 부친의 남작 작 Side Dishes Served At Korean Restaurants〉', 《Thef Huffington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YMCA) 회장, Post》, 2014년 11월 14일(http:// 조선체육회 회장, 중추원 고문, 연희 www.huffingtonpost.com/).) 그 전문학교 교장,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러자 "모든 반찬은 공용이다(All banchan is communal)"는 말이 전 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물었더니, 한 국음식점에 가면 밥 한 공기와 국 한 기는 사후 자녀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대접만 개인용이고, 다른 음식은 대체 로 모두 나눠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이러한 식사 방식은 지난



주영하,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 책 표지 ⓒ 주영하

100여 년 동안 함께 식사하는 식탁에 서도 '개별화된 식사'를 해 온 서유럽 과 북미 서양인에게 〈숟가락+젓가락 〉의 식사 도구처럼 어색하다. 하지만 조선 시대 사대부 가장은 반드시 '혼 밥'을 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정 과 음식점의 근대성 효율성이 대세가 되면서 한국인은 '함께 식사'에서 밥 과 국만 빼고, 반찬을 다른 사람과 공 유하기 시작했다.

용례①: 고려대 설립자 김성수 부친의 이상한 습관

용례①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윤 치호(尹致昊, 1865~1945)가 쓴 영어 일기에 나온다. 윤치호는 조선 말기에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공부했다. 귀국 후 대한제국의 의정부 참의, 학부협판 등을 지내고,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활동의 주역이었다. 독립협회 회장, 위를 이어받아 친일 인사가 되었다. 칙선의원 등을 지냈다. 특히 3·1독립 운동을 두고 윤치호는 일기에서 폭도 라고 묘사했다.

용례①의 내용이 담긴 윤치호의 일 1968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 사본을



전라남도 순창의 한정식 상차림. 밥만 개인 것이고, 나머지 반찬은 공유다. ⓒ 주영하

칼럼 THE KOREAN WEEKLY / 1 MAY 2025

〈20면에서 이어짐〉

제공한 것이다. 윤치호의 일기는 그 가 청년 시절부터 죽기 직전까지 무 려 60년간(1883년 1월~1943년 10 월) 꾸준히 저술한 사료다. 유족들은 1990년 일기 원본을 포함한 각종 윤 치호 보유 원문 자료를 윤치호의 모교 인 미국 조지아의 에모리 대학(Emory University)에 기증했다. 이후 윤치호 가 한문과 영어로 쓴 원문은 한국어로 번역·출간되었다. 에모리 대학교와 국 사편찬위원회는 기증받은 자료를 디 지털로 바꾸어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

윤치호가 말한 사람은 김성수(金性 洙, 1891~1955)의 부친이다. 김성수 는 일제강점기 경성방직 사장과 동아 일보 사장을 지냈고, 고려대학교의 설 립자로 알려진다. 일제강점기 국민총 력조선연맹 이사와 평의원 등을 역임 했고, 중일전쟁의 정당성 선전, 학도 지원병 고무, 징병제 참여 독려 등을 한 친일민족행위자다.

용례①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3 일. 일요일 멋지고 추운. 지루한 오후 : 서울 집. 아주 센스 있고 재미있는 아저씨인 김성수의 부친은 젓갈, 온 갖 종류의 고추장 등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을 옷장에 넣어두는 이상한 버 릇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깔끔하게 정돈된 방에 한국식 저장고 냄새가 진 동한다. 그의 이상한 습관은 조롱의 대상이지만 나는 이해할 수 있다. 그 는 홀아비다. 그가 고른 '반찬'을 며 느리나 하인에게 주면 순식간에 다 먹 어 치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75세 이상의 노인은 자신의 안락을 위해 자 기 보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자신 과 같은 나이의 아내가 있다면, 그녀 는 남편을 따뜻하게 돌보는 데 큰 도 움이 될 수 없다. 그녀가 젊다면 왜 몇 몇 다른 동료와 함께 그녀 자신의 즐 거움과 만족을 찾을까? 남편이 그녀 자신의 길을 너무 많이 방해한다면 부 인이 커피나 약에 독을 타서 먹일 정 도로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그녀에게 오히려 감사해할지도 모른 다. 나는 내 친구의 어르신 김 씨가 홀 아비로 남아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 다." (13th. Sunday. Lovely. Cold. Dull p.m.; Seoul home. Mr. Kim Sung Soo's father a very sensible

and interesting old man has

the strange habit of keeping his favorite 'banchans' such as salted fish, hot-red pepper mixtures of all kinds—all in his closet so that his room otherwise nicely fixed has the smells of a Korean pantry. His odd habit is a matter of ridicule but I can understand it. He is a widower. If he gave his choice 'ban-chans' to his daughter-in-law or servants they would eat them up in no time. Thus an old man over 75 or so must take some self-protective measure for his own comforts. If he has a wife as old as he, she can't be of much use to him in the way of sweet ministrations. If she is young why she would seek her own pleasure and satisfaction with some other fellow. She may be thanked if she doesn't hate him positively ready to put some poison in his coffee or medicine if he happens to be too much in her way. I can understand why my friend Old Mr. Kim, stays a widower)



용례②는 미국 아리조나주 휘닉스 에서 발행되는 Phoenix Magazine 의 〈Asian Food Guide〉에 실린 한국 음식점 〈카페 가향(Cafe Ga Hyang)〉 의 소개 글에 나온다. 반찬이 나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한식에는 절이거나 발효된 채소로 만든 반찬-미니 사이드 디시-이 함께 제공된다. 4~8가지 요리가 있으며, 그중 적어 도 하나는 항상 김치다. 다른 요리로 는 식초와 참기름을 묻힌 바삭한 콩나 물, 참깨와 간장에 절인 고구마 큐브 (조림), 단무지 또는 아시아 채소를 절 인 것 등이 있다." 이 기사를 쓴 기자 는 한국 식단의 반찬이 특이했던 모양 이다.

용례③은 10살 때 미국으로 이주 하고, 20대 이후 요리사로 일한 세프



한국인은 짜장면을 먹을 때도 곡물밥 먹듯이 반찬을 필요로 한다. ⓒ 주영하

김소희(Sohui Kim)가 펴낸 영문 한 국요리책에 나온다. 그녀는 뉴욕 브루 글린의 레스토랑 굿 포크(Good Fork) 를 비롯하여 뉴욕시 최고의 새로운 음 식점 주방에서 수년간 일한 세프다. 김소희는 2015년에 본인의 두 번째 한국음식점인 인사(Insa)를 오픈하 고 자신이 경험한 서양의 요리기술에 100% 한국 음식을 접맥한다. 이 경험 을 바탕으로 2018년에 펴낸 요리책에 반찬 이야기가 나온다.

김소희는 이 책에서 "저녁 식사는 주로 쌀과 다른 곡물을 섞어 지은 밥 을 먹는 경우가 많았고, 김치찌개나 국을 끓여 식탁에 올려놓는 간단한 식 사였다. 모두가 밥 한 그릇과 국 한 그 릇을 받은 다음 반찬을 나눠 먹었다." 라고 적었다. 가정에서나 음식점에서 나 한국인 대부분은 개인용 〈밥+국〉 과 〈반찬 공유〉를 당연하게 여긴다.



글: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음식을 문화와 역사학, 사회과학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연구하는 음식인문학자(문화인류학박사)로 현재 한국 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다.

2024년 9월부터 1년간 SOAS 한국학센터 방문학자로 런던에 체류 중이다.

저서:

《음식 인문학: 음식으로 본 한국의 역사와 문화》 (2011), 《식탁 위의 한국사: 메뉴로 본 20세기 한국 음식문화사》(2013, 베트남·일본·태국에서 번역출판),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 식사 방식으로 본 한국 음식문화사》(2018, 타이완에서 번역출판), 《조선의 미식가들》(2019), 《백년식사: 대한제국 서양식 만찬부터 K-푸드까지》(2020), 《음식을 공부합니다》(2021), 《그림으로 맛보는 조선음식사》(2022, 중국에서 번역출판), 《분단 이전 북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일제강점기 북한 음식》(2023), 《글로벌푸드 한국사》 (2023), 《국수: 사람의 이동이 만들어 낸 오딧세이》(2025) 등의 책을 썼다.



용례①의 윤치호 일기 첫 번째 면(사진 왼쪽)과 두 번째 면 ⓒ 국사편찬위원회

〈밥+반찬〉의 최고 진미, 이옥의 상추쌈밥 먹기

옛날 어른의 식사 모습이다. 〈공간전 개형〉 상차림의 독상을 받은 어른은 먼저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술 떠서 입을 적신 다. 그다음에 밥을 입에 넣고 씹으면서 숟 가락을 놓고, 같은 손으로 젓가락을 잡고 서 배추김치를 한 조각 집어 입에 넣는다. 고, 오른손으로 두텁고 큰 상추를 골라 두 이렇게 시작된 식사는 대부분 '국→밥→ 장을 뒤집어 손바닥에 펴놓는다. 먼저 흰 반찬'의 순서로 이어진다. 이런 순서로 먹 으면 입 안에는 밥과 반찬이 항상 한꺼번 지 이상의 음식이 섞인다.

처럼 솟아오른다. 그런데 거름으로 인분을 어넣으면서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친다." 잔뜩 뿌려두었기 때문에 바로 뽑아서 먹자

이에 상추를 한참 담갔다 깨끗하게 씻어서 먹으면 된다고 했다. 지금부터가 상추쌈밥 맛의 핵심이다. 이옥이 묘사한 대목을 한 번 소리내어 읽어보자!

"왼손을 크게 벌려 구리쟁반처럼 들 밥을 큰 숟가락으로 퍼서 거위 알처럼 둥 글게 만들어 잎 위에 놓는다. 윗부분을 조 에 있게 마련이다. 마치 숟가락이나 젓가 금 평평하게 한 다음, 젓가락으로 얇게 뜬 국인에게 있다. 바로 '상추쌈밥' 먹는 방 히 놓는다. 가는 파와 날 갓 서너 줄기는 그 나서야 그치게 될 것이다." 식이다. 조선 후기 정조 때 학자 이옥(李鈺, 위에 눌러 얹는다. 여기에 방금 볶아낸 붉 1760~1815)은 상추쌈밥 먹는 광경을 아 은 고추장을 조금 바른다. 오른손으로 상 런 모양으로 느긋하게 씹다가 천천히 삼키 주 실감 나게 묘사했다. 그는 한여름에 단 수 잎 양쪽을 말아 단단히 오므리는데, 마 면 달고 상큼하고 진실로 맛이 있어 더 바 비가 처음 내린 직후가 상추쌈을 먹기 가 지 연밥처럼 둥글게 한다. 이제 입을 크게 할 것이 없다"고 했으니 말이다. 그의 상추 동안 씹으면 침 속에 들어 있는 효소인 아 바로 〈밥+반찬〉의 조합이 입속에서 버무 장 좋은 때라고 했다. 이때 밭에 나가면 비 벌리는데, 잇몸을 드러내고 입술을 활처럼 쌈밥에는 '밥+겨자즙에 찍은 밴댕이회+미 밀레이스(amylase, 아밀라아제)가 활성화 려지는 순간에 나온다. "이것이 바로 한국 를 흠뻑 맞은 상추가 마치 푸른 비단 치마 펼쳐야 한다. 오른손으로 쌈을 입으로 밀 나리+시금치+가는 파+날 갓 줄기+볶은 고 된다. 특히 아밀레이스의 프티알린(ptyalin) 의 맛이다!" 한식은 〈밥+국+반찬〉이 입속

치 성이 난 큰 소가 섶과 꼴을 지고 사립문 으로 돌진하다 문지도리에 걸려 멈추는 것 과 같다. 눈을 부릅떠서 화가 난 듯하고, 뺨 이 볼록하여 종기가 생긴 듯하고, 입술은 꼭 다물어 꿰맨 듯하고, 이[齒]가 빠르게 움 직이니 무언가를 쪼개는 듯하다." 이렇게 쌈을 먹을 때는 옆 사람과 우스갯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옥은 그 점에 대해서도 짚 고 있다. "처음 쌈을 씹을 때에 옆 사람이 우스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허락하지 락으로 비빔밥을 비비듯이 입속에서 두 가 밴댕이회를 집어 노란 겨자장에 한 자밤 않아야 된다. 만일 조심하지 않고 한 번 크 찍어 밥 위에 얹는다. 미나리와 어린 시금 게 웃게 되면 흰 밥알이 튀고 푸른 상추 잎 이러한 식사를 한 번에 하는 방식도 한 치를 많지도 적지도 않게 밴댕이회와 나란 이 주위에 흩뿌려져, 반드시 다 뱉어내고



양념소고기구이와 생마늘, 고추장을 올린 상추쌈밥 ⓒ 주영하

다."라고 했다. 상큼한 맛은 싱싱한 채소와 성단백질까지 더해졌다. 밴댕이회의 동물 이옥은 상추쌈밥을 무척 좋아했다. "이 겨자즙, 그리고 고추장에서 나왔을 것이다. 성단백질 속에 들어 있는 아미노산(amino 그렇다면 단맛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전분 덩어리인 밥을 입속에 넣고 오랫 추장'이 들어갔다. '전분+비전분'의 절묘 이 밥 속의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당으로 에서 '삼위일체' 되어야 맛있다. K푸드 한 이렇게 상추쌈밥을 먹으면 얼굴은 어 한 조합이 밥그릇이 아닌 상추쌈에서 완성 바꾸어준다. 밥을 씹으면 단맛이 나는 것 식에서 반찬은 조연이 아니라, 주연 중 하 니 왠지 찜찜하다. 이옥은 물을 채운 큰 동 면 모양이 될까? 다시 이옥의 묘사다. "마 된 것이다. 이옥은 그 맛이 "달고 상큼하 은 이 때문이다. 여기에 밴댕이회의 동물 나다. 이 점을 잊지 말자!

acid)이 구수한 맛을 낸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의 맛은

23 THE KOREAN WEEKLY / 1 MAY 2025

김준영의 I Love Stage 아이 러브 스테이지

한국인 프로듀서에 의해 만들어진 뮤지컬 '더 그레이트 개츠비'가 뉴욕 브로드웨이의 성공을 거쳐 지난주 런 던 웨스트엔드 콜리세움(2300석 규 모) 극장에서 공식 개막했다. 브로드 웨이 초연 이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런던 무대에 오른 이번 작품은, 눈부 신 무대와 의상, 그리고 강력한 퍼포 먼스를 앞세워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 잡았다. 그러나 현지 주요 언론들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압도적인 시각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지 닌 감정적 깊이와 원작 충실성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화려한 볼거리와 강력한 퍼포먼스

우선, 공연의 외형적 완성도에 대 해서는 많은 매체가 공통적으로 찬사 를 보냈다.

《The Stage》는 별 네 개를 부여하 며, "시작은 약간 더디지만, 제이미 무 스카토가 연기하는 개츠비가 등장하 는 순간부터 공연은 완전히 살아난다" 고 평가했다. 무스카토의 절제된 감정 표현과 파워풀한 가창력은 "영화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냈고, 폴 테이트 디

STEP1

보고싶은 공연 선택!

STEP2

날짜 선택하기!

12 13

19 20

STEP3

결제 후 좌석 확정!

한국 제작사의 뮤지컬 '더 그레이트 개츠비'

웨스트엔드 화려한 데뷔… 빛나는 무대 그러나 갈라진 내면

푸 3세(Paul Tate DePoo III)의 무대 디자인, 린다 초(Linda Cho)의 의상, 그리고 코리 패탁(Cory Pattak)의 조 명은 '눈부신 광경'을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WhatsOnStage》역시 무대 미 술과 의상, 그리고 앙상블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에 높은 점수를 주며, "콜리세움 같은 대극장을 꽉 채우기 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특히 레이 첼 터커(Rachel Tucker)와 조엘 몬태 규(Joel Montague)가 부른 넘버들은 공연의 백미로 꼽혔다.

그러나 무대의 화려함 이면에 자리 잡은 내면적 공허함은 다수 매체들의 공통적인 비판 지점이었다.

《The Guardian》은 별 한 개라는 혹평과 함께, "피츠제럴드가 창조한 인물들의 매혹적이고 복잡한 내면은 무대 위에서 종잇장처럼 얇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 중 닉 캐러웨이(코 빈 블루)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피츠 제럴드 특유의 시적 절제 대신, 수다 스러운 현대 청춘물처럼 들린다"며, 극의 서정성과 깊이가 심각하게 손상 되었다고 평했다.

《Evening Standard》역시 별 세 개를 매기며, "이 뮤지컬은 마치 초호

화 여객선처럼 관객을 압도하지만, 그 내부는 공허하다"고 비유했다. 제이 미 무스카토의 개츠비가 가진 보컬적 힘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복잡한 정체 성과 내적 갈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 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원작의 정신을 잃어버린 변주

특히 《The Independent》는 이 뮤 지컬이 피츠제럴드 원작에 대한 '기본 적인 존중조차 결여되어 있다'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기사에 따르면, "뮤지컬은 1920년 대의 외형적 상징들을 수집해 화려하 게 재현하는 데만 집중했고, 원작이 지닌 시대 비판과 인간 존재에 대한 우울한 성찰은 거의 사라졌다"고 했 다. 특히 오프닝 넘버 'Roaring On' 은 닉 캐러웨이의 고뇌를 보여줘야 할 순간에, "크루즈선 쇼를 연상시키는 파티 장면"으로 덮어버렸다는 지적이 인상적이다.

이번 한국 뮤지컬 '더 그레이트 개 츠비'는 런던 무대에서 압도적인 시각 적 성취와 강력한 퍼포먼스로 관객을 매료시켰다.

폴 테이트 디푸 3세의 무대와 린다

THE PARTY STARTS SPRING 2025 THE GREAT GATSBY

초의 의상, 그리고 배우들의 가창력은 현지 언론의 찬사를 이끌어냈다. 그러 나, 피츠제럴드 원작이 가진 섬세한 감정선과 냉혹한 시대 비판을 온전히 재현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 배적이다.

결국 런던의 혹독한 평론가들은 '더 그레이트 개츠비'가, 화려한 황금 빛 외관 속에 텅 빈 내면을 안고 웨스 트엔드에 등장했다고 평했다. 대중적 이고 시각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원하는 관객이라면 충분히 매혹될 수 있겠지만, 원작의 무게와 깊이를 기대 하는 이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결과로 남을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공연의 성패는 평론가들에 게만 남겨진 것이 아니다. 천재적인 제작자들조차 예측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은, 결국 관객들의 손에 달려 있 다. 앞으로 '더 그레이트 개츠비'가 웨 스트엔드에서 어떤 길을 걸을지는, 무 대를 직접 마주한 관객들의 평가에 의 해 결정될 것이다.

뮤지컬 공연《The Great Gatsby》 는 웨스트엔드에 위치한 런던 콜리세 움(London Coliseum)에서2025년 9 월 7일(일요일)까지 이어진다.

▮ILOVESTAGE **김준영**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ILOVESTAGE LONDON 은하계 최저가 신규 플랫폼 런던 뮤지컬 티켓 혼자 예약해도 단체 할인! 세계 최초 신호등 캘린더 시스템으로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라!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할인 정보를 받아보세요 www.ilovestage.com

신호등을 보고 할인 가능 여부 체크!

- 아직 그룹 인원이 부족해요, 다른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 곧 단체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 단체 예약이 확정됐어요! 최대 45%까지 할인이 적용돼요.

웨스트엔드 관객 설문조사

'입소문'과 '익숙한 이야기'에 이끌린다

런던 웨스트엔드(West End) 를 찾는 관객들의 티켓 구매 동기 에 관한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 가 발표되었다. 라이브 엔터테인 먼트 디지털 마케팅 전문 기관 시 추에이션 UK(Situation UK)와 런 던 극장 협회(Society of London Theatre, SOLT)가 공동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는, 입소문, 유명인 캐스팅, 그리고 친숙한 원작 소재 가 관객의 주요 유입 요인으로 확 인됐다.

2025년 3월 11일부터 23일까 지 2만1천명 이상의 응답자를 대 상으로 한 '런던 극장 관객의 마 음속(Inside the Mind of the London Theatregoer) 설문조사 에 따르면, 83.4%의 응답자가 친 구나 가족의 추천, 즉 입소문을 통 해 공연을 예매했다고 답했다. 또 한, 68.1%는 원작을 알고 있는 작 품일 때 티켓을 구매할 확률이 높 다고 했으며, 62.6%는 유명 배우 나 셀러브리티 캐스팅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답변했다.

조사 응답자 중 다수는 '데이 트리퍼(day trippers)'로, 런던 외 지역에 거주하지만 2시간 이내 통 근권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러 한 결과는 지난 해 발표된 SOLT의 웨스트엔드 관객 수 성장 정체 보 고서와도 연결된다. 여전히 관객 들은 극장 방문을 원하지만, 몇 가 지 장애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된 것이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

2024년보다 2025년에 더 많은 뮤지 컬을 관람하고 싶다고 답했다.

- 전체 응답자의 50.2%가 연극보다 뮤지컬을 선호했으며, 35세 미만에서 는 그 비율이 67.6%로 상승했다.
- 60.9%의 런던 거주자와 74.7%의 데이 트리퍼가 웨스트엔드 공연을 더 자주 보고 싶다고 답했다.
- 티켓 가격이 비싸서 관람 빈도가 낮다는 응답이 78.1%에 달했다.
- 공연의 '가성비'가 '크게 증가했 다'고 느끼는 비율은 8.6%에 불과했 으며, 티켓 가격만 '크게 증가했다' 는 의견은 26.2%였다.

런던 극장 협회 정책·연구·홍 보 위원회 의장 패트릭 그레이시 (Patrick Gracey)는 "우리는 관객 행동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항상 추구해왔다"며, "이번 데이터는 2 만 건 이상의 응답을 기반으로 매 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입소문이 여전히 가 장 강력한 티켓 구매 요인임을 재 확인했으며, 런던이 세계 연극의 중심지로서 국제 방문객들에게 필 수 방문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 시에 그는 "심야 대중교통 부족"과 "접근성 문제"가 극장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시추에이션 UK의 어카운트 매 니지먼트 총괄 디렉터 피파 벡슨 (Pippa Bexon)은 "웨스트엔드 티 켓 가격 상승에 대한 인식이 분명 히 존재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공 연을 보고자 하는 관객의 욕구도 강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조 • 35세 미만 응답자의 30.8%는 사가 "극장가에 더 많은 관객을 유 입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회는 가정(Home)입니다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House(집)으 로만 여기고 살아갑니다. 일하다가 집 에 들어가 잠만 자고 나오면서 여인 숙처럼 여기고 살거나, 잠자고 밥까 지 먹고 나오며 하숙생처럼 사는 사 람들도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sweet home'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여 기에 쓰인 스위트라는 말은 '달콤하 다' '아름답다' '신선하다' '유쾌하다' 는 등의 여러 가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이와 같이 달콤하고 아름답고 유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안식하고 쉴 수 있는 평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한국교 회는 전통적으로 5월의 첫 주를 어린 이 주일로, 이어서 둘째 주일을 어버 이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는 가정이다"라는 메시지가 선 포됩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가정이라 고 부르는 이유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교회의 전통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곁에 계신 것처럼 사는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정이라는 사실은 오랜 경 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학습되었습 니다. 특히 해외에서 탄생한 저희 교 회에서는 생활 속에서 체득하게 되었 습니다. 유학생들 두세 명이 집 하나 를 통째로 세를 내어 살기에 한 집에 서 먹고 자고 공부하면서 그야말로 식 구가 되어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런 던 시내에 살다가 점차 예배당이 있는 윔블던 근처로 모여 들다 보니까 서로 멀지 않은 한 동네에 모여 살면서 더 욱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 참 가족적이네요." 라는 방문자들 의 소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정을 영어로 Home이라고 합니 데 에베소서를 읽다가 확실하게 깨닫 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적 인'(정확하게 말하면, 가족이 아니지 만 그렇게 느끼는, '가족인 듯 가족 아 닌 가족 같은' 존재라는 의미?) 것이 아니라 한 하늘 아버지를 모신 "진정 한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단체 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 회입니다. 국가도 하나님이 인정하셨 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단체는 아닙니다. 국가를 만들겠다는 인간들 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뿐 입니다. 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와 가정은 자연스럽게 닮은꼴입니다. 교 회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가 정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사 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어 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인되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 니다.

> >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을 이루 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관 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입니다. 자녀가 없어도 부부만 있으면 가정 이 이루어지니 이것이 가정 을 이루는 근본 요소인 것

이 맞습니다. 성경은 부부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하여 각각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 를 "사랑하라"고, 아내에게는 남편에 게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가정의 리더십을 남편에게 맡기고 있 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도 엄 격하게 묻고 있습니다.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자라야 가정을 이끌 어 나갈 수 있는 가장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말하자면, 아 내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 에게만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아내에게는 가정을 화합 하는 역할을 맡겨 주셨습니다. 존경과 복종함으로 화합해야 합니다.

가정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성 경은 부모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 다. 요즘처럼 다양한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서는 더욱 귀 기울여 듣고 따라 야 할 교훈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 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 십니다. 이 명령은 복을 약속하시면 서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에게 효도하다가 복을 받은 예는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예수 그 리스도와 교회(성도)의 관계에 비유하 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 장은 남편과 아내에 관해 그리고 그리 스도와 교회에 관해 의도적으로 주어 를 바꾸어가며(inter-changeably)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영적 DNA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 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우 리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 리의 사랑의 관계를 배웁니다. 거꾸로 우리는 교회에 속함으로써 가정이 거 룩해지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로서의 가정,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 을까요?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 로를 향하여 각자의 책임을 다하되 내 가 먼저 행함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수평적 원리만으로는 부 족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인간의 노력 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 문입니다. 너와 나, 남편과 아내, 부모 와 자식 간의 관계만으로 되지 않습니 다. 행복한 가정은 인간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우선 되어야 가정의 행복을 지 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가장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로서 가장이 되신 가정입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로서 가장이 되신 가정입니다.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찬송가 559장)

완전한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 정의 중심에 거하심으로 이루어집니 다.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날마 다 원망과 한숨. 그리고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집도 있고 돈과 명예와 권세도 있고 자식도 있는 데, 바로 그 돈과 그 자식 때문에 다투 고 노심초사하며 날마다 다투고 눈물 로 지새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저런 필요와 부족이 있지만 매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찬송이 흘 러나오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께서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런 가정은 항상 행복을 누릴 수 있습

지금까지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며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목회의 완성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교 회를 이루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일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 칼럼의 제 목에서 찾았습니다. 가정적인 교회

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 로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 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조적으로도 가 정들로 이루어진 커다란 가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 로 모신 자녀들로 이루어진 믿음의 공 동체입니다. 선교회를 가리켜 parachurch 라고 부릅니다. para는 '넘어 선다' 혹은 '초월한다'는 의미를 가진 접두사입니다. 그러므로 선교회 또한 확장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 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함께 하시 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은 세속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지 않습니 다. 집이 좀 좁고 초라해도. 먹을 것이 풍성치 못하고 수입이 적어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있어도, 행복할 수 있 습니다. 가족이 떨어져 있고 먼저 하 늘나라에 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 시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항상 식탁에 의자 하나를 비워놓는 가정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자리랍니다. 밥을 먹을 때 뿐 아니라 대화할 때나 잠을 잘 때에도 예수님이 항상 곁에 계신 것처럼 사는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석천 목사 행복한교회 담임

가 아니라,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이루



런던한국학교통 후원해 주세요

대한민국 교육부어 등록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린덴한국학교는 한국인으로서 경제성을 가지고 멋진 글로벌 인제로 **성장해 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면단한국학교를 용원하고 지원해 주실 손길을 기다립니다.

정기 우면: 매달 경기 후면 (빨챙역 Stending Order) 일시 후전: 계약 승규

후셈 방법

KES Hens Benk Account No.: 10001045 Sort Code: 30-14-73 London Korean School Ltd







재영한인교회연합회

KCA in the UK



바른 신학 . 바른 교회 . 바른 생활

주중예배

5:30am (한빛센터)

10:00am (한빛센터)

수요토들러그룹:

수요예배: 8:00pm (한빛센터)

새벽예배:

1부: 10:00am (한빛센터) 2부: 2:00pm (본당)

유치부: 2:00pm (본당) 유초등부: 2:00pm (본당) 중고등부: 2:00pm (한빛센터)

청년부: 4:30pm (한빛센터)

담임목사: 김동윤 목시 홈페이지: www.hanbeet.org / 전화: 0208 546 3600 한빛센터: 122 London Rd, Kingston, KT2 6QJ 본당: 한빛교회/Kingston Methodist Church, 13 Fairfield S, KT1 2UJ 學學이름다운교회

ST. JOHN's CHURCH Spencer Hill, Wimbledon SW19 4NZ



담임: 백장현 목사

www.bkclondon.com

The Borough Welsh Congregational Chapel 90 Southwark Bridge Rd., London, SW1 0EX

예배시간

주일 오후 2시

당임목사 이상보

9 07449 767905

홈페이지 www.londoncentralchurch.org



Weybridge White House



말씀과 기도의 집

The WORD and Prayer house

주일예배오전 11시

담임: 김호근목사

주소: 77 Heath Road, Weybridge, Surrey KT13 8TN E-mail: wphlondon@hotmail.com 문의: 장순영 선교사 07917-726-839



주일 오전 10시 30분

The Priory Church of England primary School, Queen's Rd, London SW19 8LX

• 주일학교는 같은 시간에 다른 방에서 진행됩니다.



- 命 godsvisionchurch.org
- **%** 07949947800 🙉 mokjada
- ☑ info@godsvisionchurch.org



새벽예배는 줌으로

ID: 840 7687 8395

07748 500 038

꿈이있는교호

주일 오후 2시

Welsh Baptist Church, 30 Eastcastle Street, London, W1W 8DI

• 주일학교는 같은 시간에 다른 방에서 진행됩니다.

- ② 담임목사 이영주
- 命 godsvisionchurch.org
- **** 07949947800
- 🙉 mokjada ☑ info@godsvisionchurch.org





- 1. 예배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
- 2.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 3.성령과 기도로 회복되는 교회
- 4. 전도, 헌신, 봉사로 하나되는 교회
- ■주일 예배 : 오후 2시 담임 목사 : **김주경**
- 문의: 07528 295 356 / ukikim11@gmail.com 160 Green Lane, Morden, Surrey SM4 6SR





The Love Of Jesus

주 일 예 배: 오후 2시 새 벽 기 도: 오전 6시 화요성경공부: 오후 1시

메 일 : Incc@naver.com 화: 07790553317

예 배 장소: St. John's Church, Kingston Road, New Malden, Surrey, KT3 3RX

담임목사:황형식

런던영광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새소식반: 금요일 오후3:30~6:00

Mothers & Toddlers: 수요일 10:30~12:00

연락처: 안병기 목사/김경순 사모

revbkahn@gmail.com/msksahn@gmail.com 07990 760354/07747 325242

On a rainy day

will be your umbrella!



• 담임목사 김용복

글로리아 센터 청소년: 10 시, 청년 5시 (High St, New Malden, KT3 3PY)

*교 회 장년 & 주일학교 :1시 (39 Ewell Road, Surbiton, KT6 6AF)

Gloria Church

조성영목사 07914069732

m http://ljvc.org 020 8346 2070/ 07828 267762

때 담임목사: 이희영

카톡 ID: revheui



런던 [시내, 센트럴]

예수비전교회

케임브리지 열림교회 Cambridge Yeolim Church

■ 예배장소

Castle Street Methodist Church, Castle Street, Cambridge CB3 0AH (주차장은 2 St Peter's Street, CB3 0AH)

- 예배시간: 주일 오후 2시
- 담임목사 : 김태규
- 문의: 01223 573275 07837 840294

www.cambridge.onmam.com

■ 예배장소: Wimbledon Baptist Church 129 The Broadway Wimbledon SW19 1QJ

Wimbledon Korean Baptist Church

■ 예배시간: 새벽기도 online → 오전 6시(화~금) 금요기도회 → 오전 10시 (격주) 주일예배 → 오후 2시

■ 문의 : 권종현 목사

enochwith@yahoo.com



"예배가 살아있는 행복한 교회!"

- 주일예배 (한국어 / 주일학교 / 인터네셔널) 1부 : 오전 8:30 2부 : 오전 10:30 3부 : 오후 1:30 유아, 유초, 중고 : 오전 11시 인터네셔널 : 오전 9시
- **주중예배** (수요 / 금요 / 새벽) 수요: 저녁 7:30 금요: 저녁 8시 새벽: 월-금 오전 6시
- 🐱 lfgcuk0691@gmail.com | 📟 karra0510 37 West Barnes Lane, Raynes Park, SW20 OBL



예배: 주일 오후 1:30/ 수요일 오후 8시

18 Randell's Rd, London N1 ODH

Kings Cross역 도보 7분 교회 주변 무료 주차 가능

\ominus 지하철: St. Pancras Int.(유로스타),

장소: Paget Christian Centre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행16:31)

LOVES

(요일4:8)

- 주일예배 : 오후 1시 ■ 담임목사: 지성구
- 키톡 ID: ukm0691
- ■예배장소: St Philemon's Church 78 Admiral St, Toxteth, Liverpool L8 8BR
- 인스타: @liverpoolkoreanchurchuk
- ■홈페이지: liverpoolkoreanchurch.org

랟던새로유교회 London New Church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

- ■주일예배 : 주일 오후 2시 30분
- ■새벽예배 (월-금): 오전 5시30분
- 수요성경공부 (ZOOM): 저녁 7시30분 새로운교회 카독연결
- ■담임목사 : 권순신
- ■전화: 07795 467248 ■홈페이지: www.gp21.org
- Emmanuel Church, Dudley Drive, Morden, SM4 4RJ



Waterloo

London Grace Chapel

주일예배: 2시 **English Bible Talk**

- 2세대 자녀들을위한 영어설교 청년부: 예배후



- **Living Space** 1 Coral St., Waterloo, Londo SE1 7BE

- **** 07859920609 @ withkimsh@gmail.com

/ 29 전면광고 THE KOREAN WEEKLY / 1 MAY 2025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mark>휴람 의료서비스</mark>를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진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휴람은 상담 - 예약 - 검진진행 - 사후관리를 보호자 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4. 암표지자검사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6. 요검사

- 7. 체지방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9. 소화기검사 (수면 위내시경)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오전 4시간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65만원 ~

•휴람 당일종합검진 + 수면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115만원 ~

•휴람 숙박종합검진 + 뇌MRA, 심장CT

유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210만원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 뇌MRI, 심장초음파, 복부조영CT, 흉부(폐)CT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VVIP종합검진

462만원 ~ 소요시간 : 2일간 진행(오전 검사 시행)

•휴람 VIP종합검진 + PET-CT(전신암정밀검사), 복부비만CT, 관상동맥CT 뇌심장정밀혈액검사 + 2일간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해외동포 특별가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이료 네트워크 병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H+양지병원(신림역) 안산한도병원(선부역) 세란병원(독립문역)

광동병원[양방&한방](봉은사역)





한국문의: +82 (0)70 4141 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카카오톡: 010 3469 4040 (kakao ID: huramkorea)

이메일: huram@huram.kr

홈페이지: www.huramkorea.com

THE KOREAN WEEKLY / 1 MAY 2025 전면광고 / 31

가치 있는 상품을 만나는 스토어 웰빙 카페

WELL-BEING CAFE

프리미엄 딸따냥 발패치

£15



- 장시간 서서 일하는 분
- 다리가 무겁고 피곤한 분
- 평소 발이 차가운 분
- 부종이 있는 분
- 발에 자주 쥐나는 분
- 여행이나 장시간 걸은 날

한국산 천연 게르마늄 함유 무겁고 피곤한 다리와 발을 가볍게! 로신 피고 오펜치 참 자스크 가퍼워?

하루의 피곤을 패치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경제적 친환경 살균효과 필터 없이 간편 사용, 잔류물 없는 방역

Made in Korea

제품설명 QR 참조 구/입/문/의 코리안위클리 온라인 사업부



07842 758 697

koweekly@koweekly.co.uk

ww.cdkorea.kr 쿠팡·아마존·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인기 판매

네오듐 3000 가우스 동전패치

원하는 부위에 빠르게 통증 탈출!!!





어깨/손목/무릎/허리

근육통이 느껴지는 어디는 부칙하면 3000가우스

강력한 자력으로 빠른 통증 완화

네오듐 영구자석은 리필 패치에 부착하여 재사용 가능합니다.



정교해진 기술력으로 사용하는 부위에 진동을 발생하여 집중케어하는 원리

지구력 넘치는 사랑 받는 남성 되기
시원하고 힘찬 소변발, 쾌변 경험
피로 사라지고 의욕 넘치는
새로운 인생 즐길 수 있는 희망 !!!

생활광고 / 37 THE KOREAN WEEKLY / 1 MAY 2025

미소 하우스 (하숙, 민박)

뉴몰든역 3분, 런던시내 접근 편리, 조용한 주택가 일인 욕실룸~넓은 가족룸 포함 다양한 룸 완비 정성스럽고 맛있는 아침, 저녁 한식, 카드결제 가능 출장, 주재, 연수, 여행, 집 구하기 전·귀임 전 잠시

카톡문의: misohouse 🕿 0782 333 6807

조은 하숙 (구 이모네)

뉴몰든역 도보 2분 거리. 런던 시내 접근 매우 편리 아침 저녁 최고 맛있는 한식 제공 1인실부터 가족룸까지 다양한 룸 완비 장·단기 출장 / 연수 / 가족 여행 환영

☎ 07817 921 280 카톡 : leedh022769



고객맞춤형가격/영국표준품질/철저한 사후관리 ■ Fully Insured(10 Million)

하우스/레스토랑/사무실
신축/증축/변경
설계/디자인/카운실
허기

• 증명서 발급/설치/수리(가스/보일러/전기/언더히팅/에어콘) • 인테리어/리퍼비쉬

Mobile. 07515 738 777

dyk8855@gmail.com

편안하고 아늑한 정 하우스

출장, 주재, 가족 여행, 집 구하기 전 임시거주 등 어떤 목적에도 적당한 게스트 하우스. 아늑한 리셥션, 초고속 인터넷, 세탁 서비스, 깔끔하고 맛깔스런 아침 저녁 제공, 카드결제 가능. 뉴몰든 역 10분, 집앞 버스 213, K1. 구 올리브 하우스.

☎ 07908 522 109 카톡 ID: junghouse5

백프로 골프교실

골프관련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드립니다. **2** 07770 392 060

baigpro@hotmail.com Inner Drive Golf New Malden, 30 High St, New Malden KT3 4HE

:: **BRITISH** PROPERTY **AWARDS** 2019-2025 state agents 서울부동산 | 020 8949 4989 158 High Street, New Malden, KT3 4ES

Cambridge Maths Academy

케임브리지 대학교 수학 전공 선생님의 온라인 줌 수업 A-level Maths, Further maths, Foundation maths 자세한 수업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cma-edu_tistory_com/842

2 07491 906 433

GCSE, KS3 과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수학 수업, GCSE, IGCSE 각 보드별 수업 (AQA Edexcel, OCR, Cambridge, WJEC). Key stage 3, 13+ 준비, 식스폼 학교 입학시험 준비. 따라가기 힘든 Y5-Y11 학교 진도와 숙제 봐드림. 런던대학 킹스컬리지 과학교육학 석·박사. 영국 지도경험 20년, 전직교사(여) 🕿 0794 162 5292

런던 우체국 London Parcel Office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세관/유럽 배송 문의 환영

www.lpouk.com 020 8569 2588 / 0789 790 2044

KS3, GCSE, A-Level 수학 과학 지도

경험이 풍부한 UMIST 전자 통신 공학 석사 선생님이 수학, 물리, 생물, 화학 과목들을 각 보드별에 맞게 잘 가르쳐 드립니다. 영국 지도 경험 10년 이상. (줌 수업 가능)

27 07846 350 561

온라인 중국어 레슨

원어민 개인 레슨. 영국 NHS 방사선과 근무 경험. 1995-97년 과천 외국어 고등학교 만다린 교사. 기초부터 고급 (HSK 시험)까지 내 수준에 퍼펙트 맞춤. 모든 강좌 온라인 진행. 수업료 시간당 25파운드.

ashdenegarden@gmail.com

생활광고 안내

이메일로 광고내용, 게재 횟수, 연락처를 적어 보내주시면

koweekly@koweekly.co.uk

2회:£25 3회:£30

1회:£15

6호 : £50 8호 : £65

12회:£90

24회: £150

◆플루트 렛슨·음악이론 렛슨◆

Professional Teaching Specialist 전문가가 빠르고 올바르게 가르칩니다. 학생들 그레이드·음악장학생·음악이론 전문.

☎ 0783 468 7828 뉴몰든 파운틴

클라식기타렛슨

영국에서 MA 수료, 기타리스트로 활동 중. Trinity, ABRSM, Music Theory ARSMC (beyond Grade 8 level) 시험 준비. 취미를 위한 맞춤 수업. 연주 테크닉 향상, 온라인·오프라인 방문 수업,

5 07538 081 541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코리안 위클리는 본지나 관련된 웹사이트에 실린 광고주의 정체를 어느 정도 확인합니다. 그 러나 광고주나 광고의 정확성, 신뢰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서비스 또는 서비스와 관 련된 광고, 기타 정보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본지에 실린 광고에 대한 신뢰 여부 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코리안 위클리는 광고주와 광고내용, 연락, 제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 부수적, 징벌적, 파생적인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독자 분들이 본지에 실린 광고주와 광고 내용 연락이나 제품, 서비스 구입 혹은 계약 이전에 나름대로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note that any adverts contained in Korean Weekly does not imply a commendation or endorsement or approval by Korean Weekly Newspaper of any advertising claims or of the advertiser, its product, or services. Korean Weekly reserves the right to accept or reject any advertisement submitted for its newspaper publications and on its websites. While Korean Weekly employs its best endeavours to confirm the identity of the advertisers, it does not attempt to investigate or verify claims made in advertisements appearing in its Newspaper publications and on its websites. Korean Weekly disclaims any liability whatsoever in connection with advertising appearing in its newspaper and on its websites."

Total Clean 토탈클린 세탁

세탁·수선 전문 세탁: 의류, 이불, 커텐 등 명품 의류 수선 전문 115 Kingston Rd. New Malden

☎ 020 8949 7999 (일번지 정육점 바로 옆)

인벤토리 청소전문 - 서울클리닝

10년 노하우 인벤토리 청소 전문 처음부터 인벤토리 체크까지 책임지며 훼손된 부분 수리가능

2 07947 299 669 / 07432 703 156

어디로 갈까 고민마세요. 정비의 으뜸 에이쓰리 모터즈



튠업 / 타이밍벨트 / 오일교환 / 타이어 교환 · 펑크 / 전기문제



기술자 염관식

20년 이상 경력 소유 한국 자동차정비 자격증 소지자 영국 자동차정비 자격증 소지자

22 Wellington Crescent, New Malden KT3 3NE

©07540 142 017

UK Top Tour

프레미엄 투어 / 의전 / 공항픽업 / 캡서비스 전문통역 / 벤츠 V-Class / E-Class

☎ 07879 405 139 카톡: kingstonplus

(직원 모집 : 워홀 환영)

스마일캡

공항픽업 서비스, 간단한 학생 이사 친절히 모십니다

2 07961 778 296



1 재영한인교회연합

세계와 한국선교 현황

강사 : 강대흥 선교사 (KWMA 사무총장)

③ 간담회 주제

· 오전세션 : 세계와 한국선교

· 오후세션 : 목회자&선교

③일시: 2025.5.8 목

· 오전세션: 10:00 ~ 12:00

· 오후세션 : 1:00 ~ 3:00

장소: 런던 순복음 교회 본당

7 West Barnes Lane, Raynes Park, SW20 OBL

THE KOREAN WEEKLY / 1 MAY 2025 전면광고 / 39



40 / 전면광고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Overseas Election for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Period of reporting an overseas absentee

2025. 4. 4. ~ 2025. 4. 24.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Period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alter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n overseas voter

~ 2025. 4. 24.

투표기간 Voting period

2025. 5. 20. ~ 2025. 5. 25.

매일 08:00~17:00 08:00 - 17:00 every day

-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The voting period may differ by diplomatic mission.

투표장소 Voting Place

- ·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 · The place designated by the Overseas Election Commission

투표대상 Eligible Voters

-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 \cdot Korean nationals enrolled in official lists of overseas absentee voters or overseas eligible voters

준비물 Required Documents

- · 신분증명서(단,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 함께 지참)
- ·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Overseas eligible voters should also prepare original copies of the documents required to identify the nationality.)
-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명서는 필요없음
- * Additional identification certificates are not necessary if a photo is attached to the documents that identify the nationality.
- * 국적확인서류는 해당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color{red}{*}} \ \, \text{Documents to identify the nationality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relevant diplomatic mission.}$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 *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go.kr), and Overseas Korean Agency(oka.go.kr).